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보도일시	2011. 6. 22(수) 배포시		
배포일시	2011. 6. 22(수)	담당부서	예산실 교육과학예산과
담당과장	이종욱(2150-7250)	담당자	최용호 사무관(2150-7251) 정희철 사무관(2150-7254) 최진광 사무관(2150-7252)

제목 : “초중등에 편중된 교육재정 구조 개편되어야...” -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교육 분야 -

- ☐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학계·언론계·국회·시민단체 등 전문가들과 교육분야 중장기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 * 일시 및 장소 : 6.22(수) 10:00~12:00, 서울지방조달청(PPS홀)
 - 학생수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방향과 평생학습사회 구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 토론자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학습 수요 변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 초중등교육에 편중된 **교육재정 지원 구조**를 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도 **균형있게 배분**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 투입위주의 양적 접근보다는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는 공교육 전반의 질적 제고노력**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 ☐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등록금 부담 완화문제**에 대해서는
 - 대학이 주도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할 만한 수준의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 차원에서 재정도 일정부분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음

□ 또한, 향후 고령화 및 베이비 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기 도래에 따라 장년층과 노년층의 학습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지원체계 확충과 대학의 평생학습 기능을 강화하자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음

1. 2011-2015 교육분야 재정운용방향 (발제요지)

가. 교육분야 재정현황과 투자방향

□ 2011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41.2조원으로 2010년의 38.3조원 보다 7.8%가 증가한 수준

- 유아 및 초중등교육(2조 9,380억원, 9.0%)과 평생·직업교육 부문(1,122억원, 46.5%)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

□ OECD 통계에 따르면, 2007년 기준 GDP 대비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2.8%로 OECD 평균인 0.9%에 비해 3배가량 높음

-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함께, 사교육 수요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전반의 구조개혁이 요구됨
- 또한, 대학의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 및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접근성이 제약받지 않도록 국가장학금제도를 재정비할 필요

□ 한국의 종합적인 교육경쟁력은 한국의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및 과학과 기술 경쟁력에 비해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 (IMD 세계경쟁력연감)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22위에 이르고, 과학과 기술의 경쟁력이 각각 5위와 14위로 평가된 데 비해, 교육경쟁력은 29위로 저조

- 이는 서면평가 문제풀이 능력보다 중요한 창의성과 사고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학교교육이 취약하고,
- 특히 최종 교육단계라 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여전히 확보되지 않고 있는데 연유한 것으로 진단

나. 부문별 정책방향

- **(유아교육)** 사립유치원의 높은 비중(77.9%, 2008년 기준)과 초중등부문보다 열악한 교육환경 감안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또한, 만 5세 **공통과정**(2012학년도부터 도입 예정)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마련**(교육내용, 교사양성 등)이 요구됨
- **(초중등교육)** 정부는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창의·인성 교육 확산** 등 우수인재 양성에 대한 지속 투자를 확대
 - ‘**교원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성과평가체계와 연동시킴**으로써, **교원의 능력향상**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을 도모
 - 산업맞춤형 학교로서의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를 집중 육성해 **先취업 後진학** 체제를 구축해 **일과 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원
- **(고등교육)** 대학에 대한 **재정투자**는 국내·외 **환경 변화** 및 **인구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추진
 -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 필요성 증대**, **저소득층 교육기회 확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고려
 - 인구 고령화에 따라 **대학교육도 중장기적으로 평생학습의 시각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체계 개선

2. 평생학습사회의 구현 (발제요지)

- 한국이 직면한 **경제사회환경*** 하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

* 고등교육의 보편화, 노동시장에서 숙련불일치, 인구의 고령화 등

○ 산업화시대의 발전 모델이었던 정규교육 중심의 숙련형성 시스템은 학습복지에 바탕을 두는 인적자본 투자로 전환 필요

□ 현재의 평생학습시스템은 학습-고용-복지-문화를 상호 연계하기에는 매우 취약한 수준

○ 평생학습계좌제, 평생학습결과인정, 자격제도 등이 연계없이 독자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비효율성 발생

○ 또한, 각부처(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등)와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체계성 부족

□ 향후, 평생학습 사회 구축은 ①재원의 조달 및 배분, ②추진체제 확립, ③인프라 재확립이라는 세 요소를 상호 연계하도록 추진

○ 평생학습계좌제 재구축, 평생학습재원 마련, 법제도적 지원 및 연계 시스템 마련, 수평적·수직적 지배구조 재설계 등 제안

[참고] 토론 주제 및 참석자 현황

☐ 토론주제

① '11~'15년 교육분야 중기 재정운용방향

② 평생학습사회의 구현

☐ 참석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사회자	문용린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발제자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형만	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박인종	평생교육진흥원 인생100세학습뉴딜본부장
토론자	송인수	“사교육걱정 없는 세상” 대표
	김영철	한국교육정책연구원 대표
	소기홍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최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예산담당관
	이종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현두	동아일보 교육생활부 차장
	하연섭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